

화엄(華嚴)의 세계관을 차용한 제주문화공간 분석*

김치완**

- I. 머리말
- II. 변방(邊方), 제주
- III. 중심(中心), 제주
- IV. 공간(空間), 제주
- V. 맺음말

국문요약

공간의 개념과 그것들의 틀을 제공하는 세계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늘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까닭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쪽에서 저쪽까지라는 면(面)을 가지고 있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생성하고 변화하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문화산업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라는 용어를 감히 쓰기 어려울 정도로 고급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주는 그동안 홀대받던 ‘변방(邊方)’이라는 이미지를 오히려 차별화된 문화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转机(轉機)를 맞이했다고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글은 2015년 11월 26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주최로 제주에서 열린 ‘2015 동아시아 해양도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제주 문화공간의 위치와 층위(層位, Layer): 화엄(華嚴)의 세계관을 차용한 “포개진 공간(multi-layered Space)” 試論」을 보태고 기운 것임을 밝혀둔다.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평가된다.

현실적으로 제주는 국내외적으로 ‘문화’가 절대 우위의 헤시태그(#)가 되면서 재발견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래서 변방의식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었던 ‘한반도 문화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고도(孤島)’는 ‘신자유주의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힐링(healing)의 섬’으로 상징조작(象徵操作, image manipulation)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변방’이라는 제주의 현상적 층위를 검토하고, 그와는 반대로 로컬리티 담론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담론에서 요청되는 이른바 ‘중심인 로컬’이라는 제주의 본질적 위치가 가지는 층위, 그리고 그것이 현상적 위치와 갈등을 일으키는 공간을 다층적 공간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상공간과 추상공간, 그리고 글로벌과 로컬 등으로 이항대립되는 공간 인식을 인식의 변화라는 인문학적 실천을 통해 평등하면서도 ‘두께’를 가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화엄의 세계관을 이용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제주문화공간, 화엄의 세계관,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 힐링(healing)의 섬, 상징조작(象徵操作).

I. 머리말

최근 공간이론의 경향이 “공간(space)을 이미 주어진 텅 빈 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갈등하는 공간적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선언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¹⁾는 점은 그다지 새롭지 않다. “공간은 텅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행위, 관계, 상호작용의 산물이지만 그러한 공간은 행위, 관계, 상호작용에 인과적 영향을 끼친다.”²⁾라는 설명도

1) 서영표,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 『공간과 사회』 제24권 1호(통권 47호), 한국공간환경학회, 6쪽.

‘생성과 변화의 장이면서 생성과 변화에 관여함으로써 실재한다.’라는 플라톤의 코라(κώρα)나 ‘사물이 존재하는 바깥 경계라는 존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포스(τοπος)에 대한 설명과 대동소이하다.³⁾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제주의 공간으로 인지되고 체험되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언제나 이미’ 제주인들의 행위 또는 실천의 전제이지만(인과적 힘을 갖지만) 그 행위와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추상적 공간이지만 우리 몸과 자연의 한계를 고려하지 못하여 저항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이어서 더 구체적인 공간 제주에서 비동시대적인 것의 공존이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⁴⁾라는 결론에 이르는 논리 구조도 오늘날 제주를 대상으로 하는 공감담론에서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이다.

2) 서영표, 위의 논문, 같은 쪽.

3) 줄고, 『섬[島]-공간의 철학적 접근: 플라톤과 노자의 ‘공간’ 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5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4, 120~147쪽. 플라톤 이전의 서양철학에서 공간은 ‘생성과 존재가 펼쳐지는 場’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인도철학에서처럼 ‘있는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았다. 플라톤은 생성과 변화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關與(μέθεξις)하고 ‘있는 것’인 공간을 ‘코라(κώρα)’라고 불렀다. 그런데 코라는 ‘존재’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實在함에도 불구하고 ‘있음직한 것’으로 규정되는 데 그쳤다. 공간이 ‘있는 것’이 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 개념인 ‘토포스(τοπος)’에 이르러서였다. 토포스는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바깥에서 구획한 경계, 또는 “둘러싸는 외피에 의해 경계가 정해지는 빈 곳”이라는 설명을 통해 존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존재의 자리를 차지한 토포스는 흔히 생각하듯이 나란히 펼쳐져서 이곳과 저곳이 구획되어지는 面이 아니라, “작은 공간이 큰 공간 속에 들어 있는 식으로 서로 겹치거나 둘러싸”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있음직한 것’이건 겹겹이 쌓인 형태로 있는 것이건, 그도 아니라면 ‘비어-있는 것’이건 공간을 정의하는 것은 녹록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공간을 가리킬 때 ‘비어(無)-있음(有)’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라면 ‘없음이 있다’는 의미론적 형용모순이다. 이러한 점을 직감했기 때문에 플라톤은 자신의 설명을 ‘庶出的 推論(λογισμῶ τιμι νόθω)’으로, 노자는 ‘말할 수 없는 것(不可致詰)’으로 표현했다. ‘서출적’이라든가,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등의 표현에는 ‘생소하고 익숙하지 못한(ἀτόπου και ἀήθους)’ 것을 표현한다는 자각이 포함되어 있다.

4) 서영표, 위의 논문, 39~41쪽.

공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는 동양과 서양, 고대와 근현대가 별 다르지 않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공간 담론은 공간이 ‘살아 움직이는 실체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데로 귀결된다. 그런데도 공간의 개념과 그것들의 틀을 제공하는 세계관에 대한 검토는 늘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공간에 대한 담론의 양만큼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쪽에서 저쪽까지라는 면(面)을 가지고 있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생성하고 변화하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선행 담론의 결론 이후에 그만큼 살아 움직여 변화한 공간에 대한 담론은 늘 새롭게 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⁵⁾ 이 연구에서 ‘문화공간’에 주목하고 있는 까닭도 오늘날의 공간담론이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삶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삶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소비되는 상품, 또는 강제되고 조작된 복제 이미지로 취급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 차세대성장동력산업분야로 주목하고 있다. 한류(韓流)라고 불리는 그 무엇이 동아시아의 주목을 받을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동아시아의 주목을 받게 된 한국의 연예사업(entertainment)을 한류로 포장한 것에 불과한지는 따져보아야 할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문화산업이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라는 용어를 감히 쓸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정이 이런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5) 2013년과 2014년 동아시아 해양도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섬[島]-공간의 철학적 접근: 플라톤과 노자의 ‘공간’ 개념 검토를 중심으로」와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는 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제주라는 공간의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론적 출발점을 찾으려는 시도”(서영표, 위의 논문, 40쪽)로 볼 수 있다. 「섬[島]-공간의 철학적 접근: 플라톤과 노자의 ‘공간’ 개념 검토를 중심으로」에서는 공간에 대한 그리스와 중국의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동원하여 섬이 ‘아직 펼쳐지지 않은 육지’ 곧 아직 삶의 현장으로 온당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하였지만, 오늘날을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 실천적 행위를 통해 삶의 현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는 르페브르의 개념들을 이용해서 제주라는 공간의 희망은 그곳이 담론적 실체의 공간이 되는 지점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중국에서도 최근 개최된 제18기 5중전회에서 문화산업을 향후 5년간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손꼽을 정도이다.⁶⁾ 이렇게 보면 ‘문화야말로 차세대 먹거리가 된다.’라는 주장은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통용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낮선 경관’을 콘텐츠로 한 관광산업과 감귤산업 외에는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을 갖추지 못한 제주가 그동안 홀대받던 ‘변방(邊方)’이라는 이미지를 차별화된 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전기(轉機)를 맞이했다는 주장도 그럴 듯해 보인다.

실제로 오늘날 제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의 비중이 일본 중심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모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던 내국인들이 모여 들던 것과는 달리 이른바 문화이주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도 상당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만큼 폭주하는 안팎의 요구에 따른 역기능도 상당 부분 노출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제 제주라는 공간이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러한 제주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겹겹의 층위(層位, Layer)⁷⁾를 분석하고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 그리고 가령 지금의 상황이 안팎의 우려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에게는 물론 제주라는 공간을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이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도 긍정적일 수 있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좋은 때이기도 하다.

6) 박만원, 연구육, 「시진핑 정부가 키울 새 먹거리는…빅데이터·IOT·신에너지車·문화산업-中 GDP 50% 넘는 서비스산업…규제완화·대외개방 정책 펼دت, 『매일경제』, 2015.10.26.기사(<http://news.mk.co.kr/newsRead.php?no=1018163&year=2015>).

7) ‘layer’의 사전적 의미는 ‘1.(하나의 표면이나 여러 표면 사이를 덮고 있는) 막[층/겹/켜], 2.(시스템 등의 일부를 이루는) 층[단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소스 이미지를 사용할 때 각각의 소스들을 따로따로 관리하여서 서로 침범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이미지 개체를 가리키는 레이어(layer)에 주목하고, 이것을 층위(層位)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실제 삶의 공간에서는 이미지 개체들이 이른바 합성된 형태이지만, 각각의 층위가 커켜이 쌓여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개념적으로 이 층위를 분리하여 검토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는 데 착안하였다.

이 연구는 이렇게 복잡한 현실상황 만큼이나 복잡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곧, 동아시아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했고, 그럴 수 있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할 때 제주가 섬이라고 하는 닫힌 공간이었으므로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었고, 이제야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럴 듯하게 상품화된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복잡한 심경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화엄(華嚴)의 세계관을 차용한 것은 이 복잡한 심경을 해소할 개념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화엄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이기도 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요체는 ‘중중무진(重重無盡)의 법계연기(法界緣起)와 ‘현상과 본질의 대립을 해소하는 육상원융(六相圓融)’에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대립과 갈등 관계로 분절된 이항(二項)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과 논리구조에서 벗어날 때 ‘삶의 현장으로서 제주문화공간이 재발견, 재인식, 재구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본래 제주적인 것이 무엇이고,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부터 새롭게 소비될 형태로 재생산되는 제주를 되돌려 놓을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 그리고 탐라국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지난(至難)했던 이중소외의 역사를 구구절절이 되풀이하는 것으로 채울 생각도 없다.⁸⁾ 하지만 오늘날의 화두가 문화인만

8) ‘문화지도’, 특히 ‘동아시아문화지도’와 관련된 논의는 <김남희 외, 「<아시아문화지도>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08, 123~146쪽>, <김상철 외, 「문화지도-지도를 매체(media)로 한 문화의 이해와 표현」,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08, 147~172쪽>, <김상헌 외, 「아시아문화지도 문화분류체계와 기반기술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08, 173~203쪽>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문에서 詳述할 것이지만, 이 연구의 전체가 김상헌의 「아시아문화지도 문화분류체계의 기반기술 연구」의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밝혀둔다. “문화지도’라는 틀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접근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미 의미적으로 ‘아시아 문화는 이것과 저것과 또 가른 것들의 복잡한 조합이다’라는 시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 문화란 무엇이다’라고 한 마디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며, 아시아 문화를 하나의 일관되고 통일적인 전제로 파악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176쪽)

끔 인식의 변화야말로 접근 태도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제주 공간을 둘러싼 이항대립적 요소들을 해소시킬 방안을 화엄의 세계관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제주문화공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공간으로서의 위치와 그 켜켜이 쌓인 층위(layer)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층위의 가장 바깥 면인 오늘날의 층위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원론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II. 변방(邊方), 제주

제주를 변방(邊方)으로 인식하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손꼽을 수 있겠지만, 중국 한(漢)·당대(唐代)에 한자, 불교, 유교, 율령 등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의 동아시아국가들에 전파됨으로써 제주가 포함된 동아시아에 이른바 중화주의(中華主義)에 바탕을 둔 한자문화권이 성립된 일을 가장 오래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중화주의를 “초기 문명 단계 이후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된 문명을 유지,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가장 강대한 정치조직을 배경으로 주변의 분산적이고 후진적인 제집단 위에 군림하기 시작한 … ‘中原’(黃河中, 下流域)에 위치한 … 왕조의 주인공들이 … 자신의 문화를 단순한 최고가 아닌 ‘유일한 문화’로, 자신의 왕조는 단순한 초강대국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유일한 보편적 통합 질서 그 자체로 주장한 것”⁹⁾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천명(天命)과 왕도(王道) 등과 같은 유가(儒家)의 고아한 형이상학적 개념도 동아시아의 고대에서 현대를 관통하는 보편적 이념이라기보다는 화이론(華夷論)이라고 하는 분열적이고 대립적 세계관에 입각한 지배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¹⁰⁾

9) 李成珪, 『中華思想과 民族主義』, 『철학』 37, 한국철학회, 1992, 31쪽.

10) 권중달은 「중심부의 논리: 중화사상-이춘식 『중화사상』(교보문고, 1998년) 서평,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6호, 동아시아문화포럼, 2001, 237쪽)에서 『중화사상』의 저자 이춘식이 “중국의 제도와 정책은 모두 중화사상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화이론(華夷論)은 세계의 중앙에 문명의 중심인 화(華)를 두고, 동서남북 사방(四方)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서 문명화해야 할 숙명을 가진 변방(邊方) 이(夷)를 대치시켜 둔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 이 세계는 천명을 받은 “천자의 일원적 지배하에 당위적으로 통합되는 공간”인 천하(天下)로 인식되며, 그 “안의 모든 영토와 주민은 ‘王者’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천자의 지배(王化)는 곧 ‘유일한 문화’의 구현이었던 만큼 그것에의 편입 여부는 단순한 정치권력에 대한 참여 또는 복속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과 야만의 갈림길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전자를 ‘華’ 후자를 ‘夷’로 구분하여 차별하는 이른바 華夷思想이 발전하였는데, 특히 ‘夷’가 王道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주로 그들의 거주지와 자질 면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적 개념 즉 ‘내외’ 또는 ‘中國’과 ‘四方’과 아울러 ‘人’과 ‘非人’의 개념이 결부”되었던 것이다.¹¹⁾

물론 이러한 중화사상은 “다른 민족과의 교섭과정에서 여러 차례 굴절될 수밖에 없었”고, “천하의 제왕은 제하족이어야만 한다는 사상이나, 중국이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졌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수준이 높다는 생각도 근세에 와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에, “외복(外服)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적들도 제하족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납득했는가의 문제”가 해소되어야만 한다. 곧, “중화사상이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에 의해 어떻게 이해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동아시아문화권 또는 한자문화권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¹²⁾ 이렇게 본다면 중화사상에 입각한 동아시아문화지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중심부가 독점하는 논리라기보다는 중심부를 인식하는 주변부의 논리를 포함하여야만 완성된다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유학의 정치사상이야말로 바로 중화사사의 본질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 책의 맨 끝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그 왕을 원심(圓心)으로 하여 수많은 원을 그려 가면서 세계의 전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중화사상을 보충하는 天下사상이라고 요약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유가철학 또는 유가의 정치철학은 중화사상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겠지만, 본문에서는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천명과 왕도 개념을 夏華族 중심의 문화지배논리로서의 천명과 왕도개념과 구분하였다.

11) 李成珪, 위의 논문, 32쪽.

12) 권중달, 앞의 글, 238~239쪽.

역설도 가능하다.

더구나 “漢民族의 우월적인 위치가 상실된 정도가 아니라 ‘中國’ 영토의 일부 또는 전체가 異民族(夷)에 의해 정복 통치되는 이른바 ‘정복왕조’의 시대(결코 짧지만도 않았던)에도 화이사상이 이민족 지배에 대한 저항의 논리 뿐 아니라 그 지배의 정당성을 보증한 논리로도 기능하였던 것”¹³⁾으로 미루어 보건대, 중화주의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위치는 현실적으로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가변적인 것이었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외교적 술어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합리적 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제주 공간의 인식 표층에서 “변방(邊方)”, “주변부(周邊部)”, “소외(疎外), 특히 이중소외”라는 개념이 유명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성립되고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유포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동아시아 문화지도’, 곧 동아시아인들의 인식 속에서 탐라가 ‘동쪽 끝 변방의 남쪽 끝 변방’에 위치한 절해고도(絶海孤島)인 유배지(流配地)로 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곧 그것이 외교적 술어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청나라 이전까지는 한 번도 국가명을 ‘중국(中國)’이라고 표기한 일이 없었던 하화족과 그들의 영토를 중심으로 한 문화지도¹⁴⁾에서 탐라 또는 제주를 표기가 생략되거나, 표기된다고 하더라도 동남쪽 변방에 점 하나로 표기되었던 것이다.¹⁵⁾

고대 독립해상왕국이었다는 탐라(耽羅)는 중국 사료에 ‘섭라(涉羅),

13) 李成珪, 위의 논문, 33쪽.

14) 李成珪는 「中華思想과 民族主義」(위의 논문, 34~47쪽)에서 ‘중국’이란 개념은 (1)왕의 直轄地, (2)춘추시대 중국 내 夷狄國(吳·越·楚)에 대비되는 周왕실과 동맹 세력, (3)禹貢九州와 일치하는 전국시대 7雄의 세력, (4)정치적 통합의 대상으로서 만주, 신강, 몽고, 티벳을 포함한 清朝의 전지배영역, (5)최고의 이상적인 문명이 구현된 공간으로서 禮敎문화가 구현된 영역 등 다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5)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문화지도 상의 표기라는 것은 제주사람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의 표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그러한 표상은 실제 지도상의 표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고지도에 표기된 시기와 위치 등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동아시아인들의 표상을 검토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지, 그것을 동아시아문화지도로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탐모라(耽牟羅)’, ‘담라(擔羅)’, ‘탁라(托羅)’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되어왔다. 이 가운데서 당나라 때 이연수(李延壽)가 편찬한 『북사(北史)』에는 수(隋)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해상항로 상에 다음과 같이 탐라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탐라’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다음 해(608) 주상께서 문림랑(文林郎) 배세청(裴世淸)을 왜국에 사신으로 보내셨다. 백제(百濟)를 넘고 죽도(竹島)에 이르러 남쪽으로 탐라국(耽羅國)을 바라보며 도사마국(都斯麻國, 지금의 對馬島)을 거쳐 멀리 큰 바다로 들어갔다. 다시 동쪽으로 일지국(一支國, 지금의 一岐)에 이르렀다가 죽사국(竹斯國, 筑紫: 지금의 福岡 일대)에 이르렀고, 더 동쪽으로 가서 진왕국(秦王國)에 이르렀다. 그곳의 주민은 중국(華夏)과 같으며 이주(夷洲, 會稽郡 일대로 지금의 臺灣)라고 하는데, 의심스럽고 분명히 알 수 없다. 다시 10여 국을 거쳐 바닷가에 다다랐다. 죽사국부터 동쪽 [나라들]은 모두 왜에 부庸(附庸)한다.”¹⁶⁾

『삼국지(三國志)』에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왕래가 한반도의 남해를 따라 항해하다가 오늘날 김해지역에서 대마도와 일지국을 거쳐 일본열도로 가는 해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수서(隋書)』에서는 인용문처럼 백제(百濟)에서 죽도, 탐라국, 도사마국, 일지국, 일본열도 순서로 일단 백제 해안에서 출발하여 섬을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온다. 항로의 변경 덕분에 탐라가 중국 사료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항로상 경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묘사는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고지도에서 탐라가 표기된 것은 이보다 훨씬 후대의 일로, 송대에 제작된 『화이도(華夷圖, 1136)』에 조차도(濊貊), 삼한(三韓), 부상(扶桑), 왜국(倭國), 대막(大漠), 유구(流求) 등의 국명이 나오는 데 비해 탐라라는 명칭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이 지도는 당대(唐代) 최고의 지도학자인 가담(賈耽, 730~805)이 제작한 『해내화이도(海內華夷圖)』를 1136년에 개정하여 서안(西安) 비림(碑林)에서 석각(石刻)한 것으로 알려

16) 『北史』 권94, 列傳 82, 倭國: “明年上遣文林郎裴世淸使於倭國 度百濟 行至竹島 南望羅國 經都斯麻國 廻在大海中 又東至一支國 又至竹斯國 又東至秦王國 其人同於華夏 以爲夷洲 疑不能明也 又經十餘國 達於海岸 自竹斯國以東 皆附庸於倭.”

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표시된 초기 지도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현존하는 중국 지도 가운데 제주가 최초로 표시된 것은 원나라 때 제작된 『광륜강리도(廣輪疆理圖)』이다. 이 지도는 1360년 청준(淸濬)이 제작했다고 하는데, 원본은 전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그린 수정 목판본이 『수동일기(水東日記)』에 남아 있다. 목판본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많지만 한반도 남쪽에 제주도가 ‘탐라(耽羅)’라는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元)나라에 이르러서야 탐라가 지도상에 등장하는 까닭은 당시에 원나라 직할령인 탐라총관부(耽羅總管府)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¹⁷⁾ 사실상 지도에 표기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변방의 변방일 때는 인식의 범주 안에 포섭되지 않다가, 변방에 설치한 직할령이 되면서 인식의 범주 안에 ‘변방’으로서 포섭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원대의 지도에서부터 표시되기 시작한 탐라는 명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지만 대축척지도에서는 생략되었을 뿐 아니라 16세기의 대표적인 지도인 『대명국지도(大明國地圖; 일명 楊子器 跋輿地圖)』에도 빠져 있어서 모든 지도에서 탐라가 표시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1555년 제작된 『광여도(廣輿圖)』의 「조선도」에서는 ‘제주’라는 당시의 행정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고, 1602년에 제작된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이후로 마르티니(Martino Martini, 1614~1661)의 『신중국지도첩(1653)』을 비롯한 서양지도에서는 제주도가 ‘I.Fungma(鳳馬島, 豊馬島)’로 표시되었다. 이는 제주도가 원대 인식의 연장선상에



[그림 1. 『광륜강리도(廣輪疆理圖);
日本 大倉集古館 소장]

17) 오상학, 「중국 고지도에 표현된 제주도 인식의 변천」, 『문화역사지리』 제25권 제2호, 2013, 3~4쪽.

놓여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대에 이르면 제주의 지도상 표시는 거의 실제와 비슷할 정도로 정교해졌다. 1718년의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에는 제주도가 한반도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위도상 편차가 있으나 경도는 거의 실제와 일치한다. 『황여전람도』에 반영된 사실에 가까운 제주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위원(魏源, 1794~1856)의 『해국도지(海國圖志)』와 1845년에 제작된 서구식 세계지도인 『만국대지전도(萬國大地全圖, 湯景 판각)』에도 반영되었는데, 특히 1905년에 제작된 『대청제국전도(大清帝國全圖)』에는 제주가 섬지명인 ‘濟州島’라고 표기되어 있고 섬의 위치나 면적이 실제와 가깝게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제주도가 새롭게 주목받을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역정보가 축적되고 다양한 지도가 제작되면서 점점 명료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한편 중국 고지도에서 제주의 위치가 중국과 한국, 일본 중 어느 쪽에 더 가깝게 표시되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지도의 계보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 주목해볼 여지가 있다. 제주가 오늘날 동아시아중해(東亞地中海)라고 불리기도 하는 동아시아 삼국의 해역에 있는 큰 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아시아인들의 인식 상에서 제주는 이렇다할만한 문화적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인간이 “지도”라는 매체를 통해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¹⁹⁾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중국인의 지도에 제주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주가 중국인의 세계 인식에 포착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 곧 독립된 공간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²⁰⁾ 이런 관점에 따르면 원나라에서 직할령을 설치하기 전까지 제주는 변방의 변방이 아니라 독립된 공간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18) 오상학, 위의 논문, 12쪽.

19) 김상철 외, 앞의 논문, 154쪽.

20) 지도상 표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변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화주의적 관점에서 중국 고지도에 표기된 주변국은 종속국 취급을 받았던 것이라고 할 때 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것이라는 역설이 성립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제주는 원대의 지도에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 고대국가들, 그리고 통일제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상의 독립을 유지한 상태였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제주에 변방의 층위가 덧씌워진 것은 성주(星主) 고봉례(高鳳禮, ?~1411)에 이르러서 성주(星主)와 왕자(王者)라는 직함을 버리고 좌도지관(左都知官)·우도지관(右道之官)으로 개칭하면서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탐라국(耽羅國, B.C.57~1402)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이다. 물론 오늘날 전하는 사료 가운데 제주가 독자적 중심으로서 얼마나 활발한 삶의 공간이었던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구비전승 뿐이다. 이마저도 변방으로 포섭된 이후 내내 수많은 변형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변방의식, 소외의식, 패배의식을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1402년 이후로 국한한다면 제주는 오래도록 한반도 서남쪽 끝에 위치한 절해고도(絶海孤島)로서 대명률(大明律)의 삼천리 유배지에 해당하는 일급 유배지였을 뿐 아니라, 특히 중앙관리와 지방도호의 이중 수탈, 왜국의 빈번한 침입, 지나친 진상과 그에 따른 부역의 증대로 발생한 유민 발생 억제 정책인 출륙금지령(인조 7년; 1629. 8. 13.) 이후로는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지도상의 점(點)에 불과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변방의 위치로 편입된 이후, 오히려 제주 공간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교차하는 동아시아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었고, 근현대에는 서양선교사들과 미군정(美軍政)까지 개입한 동서냉전의 최전선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단절되고 고립된 공간이었던 덕택에 산업화에 따른 사회, 문화구조의 변화에서 비껴나서 전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국내의 관광객들과 문화 이주민들에게 집중 소비되는 이상현상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변방의 폐쇄성이 오히려 개방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데, 되짚어 말하면 ‘제주열풍’이라고 해도 좋을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사용자 가치를 보유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퇴출될 시기를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주를 중심으로 한 층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므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Ⅲ. 중심(中心), 제주

최근 5년 사이 제주에는 그동안 변방이었던 설움을 한 번에 보상받는 듯한 이른바 ‘열풍’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 열풍을 가리키는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것으로 손꼽히는 것이 제주 인구의 폭발적 증가 현상이다.²¹⁾ 그런데 그 요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는 것이 항공교통편의 발달에 따른 접근성의 확대이다. 물론 2006년 제주항공이 저가항공사로 설립되어 운항을 시작한 이후,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부산항공 등의 저가항공사가 설립되면서 항공편 증가와 항공권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주의 접근성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제주 접근성의 확대가 제주열풍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제주도 밖에서는 (1)제주를 육지와는 다른 섬으로 인식하지만 (2)접근성의 확대로 섬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1)인식이 (2)접근성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 (1)과 (2)는 별개의 요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²²⁾

21) 이승록, 「제주인구 월1100명 증가 ‘핫플레이스’, 『제주의 소리』 2015.06.28.일자 기사(<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no=163900>). 기사에 따르면, 1987년 인구 50만명에서 2013년 6월 60만명으로 10만명이 증가하는 데 26년이 걸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6월 발표된 통계청의 ‘2015년 5월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5월 제주로 순이동한 인구는 1100여명(순이동률 0.18%)에 달하는데, 2014년 월 1000명 수준이던 것에서 월별 평균 1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0.12%), 부산(-0.1%), 대구(-0.2%), 광주(-0.6%), 울산(-0.03%) 등 대도시에서 순유출이 일어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순이동률이 높아진 것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는데, 2009년까지 1015명이 순유출되다가 2010년 437명이 순유입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제주 순이동 인구는 2011년 2243명, 2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 2014년 1만 111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5년 뒤인 2020년 이전에 7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22) 양정필, 「근대 교통수단의 발달과 제주 ‘섬’ 인식의 변화, 『섬과 바다의 인문학 (<인문도시지원사업> “인문주간” 학술대회논문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79~93쪽. 여기서 양정필은 제주 열풍의 원인을 본문에 언급한 두 가지로 분석하면서 (2)를 (1)의 요인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 귀촌가구(3만3442가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가항공사들이 설립되어 제주 항공편이 확대된 시점은 2006년 9월에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를 다녀온 서명숙씨에 의해 ‘제주 올레’ 1코스가 개장되어서 전국적으로 올레 열풍이 일어난 때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보다 한 해 앞선 2005년에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각종 국제회의와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외교 중심지이자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 해결하는 완충지대로 육성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항공교통편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제주유입인구가 증가된 것이 아니라, 제주유입인구가 증가하는 다양한 요인 때문에 항공교통편이 확대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2009년에만 25~30만 명의 제주올레 탐방객이 다녀갔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²³⁾ 그리고 이 2009년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금융위기로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0.3%에 그친 해라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주 순이동률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0년에는 6.3%로 반등했지만, 이후로는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3.0%, 2014년 3.4%로 2~3%를 유지하는 이른바 ‘한국식 장기불황’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표에 따르면, 2007년의 ‘제주올레열풍’과 2010년의 ‘제주이주열풍’은 한국식 장기불황과 그것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요구가 맞물린 결과이다.²⁴⁾

구) 가운데 서울 근교인 경기(1만149가구, 30.3%)와 충북(4238가구, 12.7%)에 이어 제주도로 이동한 가구가 3568가구(19.7%)로 3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1)의 결과가 (2)일 수도 있고, (1)과 무관한 제3의 요인 때문에 (2)가 발생하고, (2)의 결과로 (1)과 다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1)을 그 결과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3) 줄고, 『카미노와 올레를 중심으로 본 문화콘텐츠로서의 길』, 『인문콘텐츠』 제30호, 2013, 49~65쪽. 여기서 2009년 통계치를 사용한 까닭은 이 해가 제주 순이동률이 증가한 2010년의 한 해 전이기 때문이다.

24) 이기석, 『“2013예산안, 5년차 MB정부 ‘균형재정회복’ 공언, 결국 ‘물거품’, 『뉴스핌』 2012.09.25. 기사(<http://newspim.com/anda/view.jsp?newsId=20120925000819>).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회복하자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이 있던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자본유출입을 완화할 목적으로 균형재정회복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장기불황의 터널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야심차게 내세워 이를 정면돌파하려고 했지만, 대내외적으로 경기회

돌이켜보면 이런 현상이 새삼스럽지만은 않다. 근대화 과정에서 제주 는 타자(他者)에 의해 소비되는 대상일 때만 중심의 위치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1963년 ‘제주도건설연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된 제주 개발에 대한 논의는 이듬해인 1964년에는 ‘관광’을 기본 방향으로 한 ‘제주도 건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관광에 초점을 맞춘 개발로 집중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는 국민 관광을 기반으로 국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제주 개발이 추진되었는데,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년간 이어졌던 제주 개발의 문제점이 표출되면서 전도민적인 특별법 제정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때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중앙정부 또는 관(官) 주도의 하향식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추진, 외부 자본과 외재적 방법에 의존하는 개발 진행, 경제적 이익의 역외 유출, 도내 지역 간 불균형 발전, 관광 주도 개발에 따른 1차 산업 위축, 외지 자본의 제주도 내 토지 잠식과 투기 행태 증가, 위락시설과 상업적 개발에 따른 향락문화의 범람과 제주 사회 문화 환경의 파괴 등이었다. 요컨대 제주를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이다.²⁵⁾

복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성장률을 낮게 설정하였고, 그 결과 2015년 현재는 2.6%로 낮춰 잡았다. 연합뉴스 2013.05.19.일자 기사 「한국 경제성장률, 15년만에 일본에 역전 전망(홍정규, 방현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208400002.HTML?input=1179.m>)와 「한국 경제 가라앉고 일본 경제 떠오르나(홍정규, 방현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8/0200000000AKR20130518074500002.HTML?input=1179m>)」 등에서 예견한 것처럼 아베노믹스를 내세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역전하지는 않았으나 한국 경제는 차이나쇼크와 엔저·원고 등에 의해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編集部, 「韓國經濟急減速の眞實」 強い韓國,はどこへ行ったのか?-向山英彦・日本総合研究所 上席主任研究員に聞く, 『ダイヤモンド社のビジネス情報サイト』, 2015.04.23.일자 기사(<http://diamond.jp/articles/-/70569?page=4>)를 참조할 것.

- 25) 이영웅, 「제주도, 개발 광풍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섬을 꿈꾸다」, 『환경과 생명』, 2008년 겨울호(통권 58호), 2008, 140~141쪽. 1967년의 ‘제주도 특정 지역 건설 종합 계획조사’에 따른 국가 투자 사업으로의 격상을 거쳐 1970년의 ‘제주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 1973년의 ‘제주도 특정 지역 관광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도 제주를 중심에 두었다는 점을 내세우는 지방정부의 정책은 제주를 삶의 공간이 아니라, 소비되는 공간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예컨대 지난해 7월 1일 원희룡 제37대 제주도지사는 취임사에서 “제주가 지닌 사람과 문화, 자연의 가치를 제대로 키운다면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될 것”이라면서 “수많은 역경을 딛고 변방의 섬 작은 제주를, 세계의 보물로 만들어 온 도민 모두가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²⁶⁾ 이보다 앞선 6월에는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문화협치를 통한 도민문화시대”,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의 섬’ 구현”, “제주문화 정체성 확립을 통한 창조시대 발판 마련”, “문화예술로 풍요롭고 행복한 제주 창조”, “문화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과 도시의 공존 모색”, “한류, K-Pop 등 공연사업육성을 통한 문화산업시대 진입” 등을 문화분야 도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²⁷⁾ 이 과제들이 일 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지켜졌는지도 문제이지만,²⁸⁾ 과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앞서 문제제기하였던 바와 같이 문화가 아닌 문화산업, 더 정확하게는 관광산업의 콘텐츠로서 문화, 상품화된 문화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우려는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제주를 대하는 시각에서도 발견된다. 최근까지 지역학을 선도해온 제주학(濟州學)은 “제주도의 자연현상과 역사적 배경 및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한국의 다른 어떤 지역과도 구별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전제가 가능한 까닭은 절해고도(絶海孤島), 곧 폐쇄된 섬이라는 제주의 지역

어 공항과 항만 확장, 도로와 통신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1985년에는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3개 관광단지 및 14개 관광지구 지정과 기본 개발 방향에 대한 구상이 제시되는 한편, 제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을 목표로 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26) 강승남, “더 큰 제주, 세계 중심의 제주 만들겠다”, 『제민일보』, 2014.07.01. 기사(<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791>) 참조.

27) 제이티뉴스, 「새도정준비위원회 123개 도정 정책과제 도출 내용」, 『제이티뉴스』, 2014.06.29. 기사(<http://www.jt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4#>) 참조.

28) 이소진, 「예산·사업 확대...현장 체감은 ‘글썸’」, 『제민일보』, 2015.07.21. 기사(<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243>). 참조

적 특성 때문이다. 섬이라는 공통된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적 양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다양한 접근이 있었다.²⁹⁾ 그런데도 이들 다양한 접근들이 시공간적인 배타적 차별성에 기대다보니, 오히려 섬이라는 전제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³⁰⁾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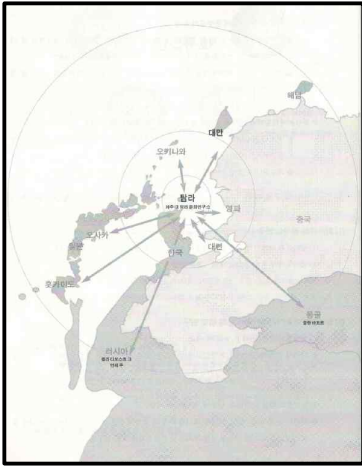
제주학은 1차적으로 제주라는 지역에 관한 학문이다. 연구 장소로는 ‘제주도에서 하는 학문’이라는 2차적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연구 주체에서 ‘제주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라는 3차 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세 단계는 행복하게 일치할 수도 있고 어긋나기도 한다. ... 제주의 문화의 역사적 복합성과 다층성을 표상하는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의 결론은 이상하게 지역특수성에 수렴되고 만다. 제주사람의 자기정체성을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분리주의적 속성이 강화되어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은 연구역량과 잠재적 연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기능도 생길 지경이다.³¹⁾

제주라는 지역의 특수성, 곧 제주를 중심에 두면 그에 따른 소외의식이 강조된다는 인문론의 주장은 역설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요즘 들어 글로벌과 로컬, 그리고 육지와 해양 담론공간에서 무게중심이 로컬과 해양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도, 제주는 여전히 ‘독자성’이라는 자기암시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면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학 담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탐라문화연구원의 연구동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탐라문화연구원에서는 2007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에 응모하면서 ‘탐라문화의 정체성과 동아시아지중해 문화 네트워크-문화자원의 집적과 사회적 활용을 위한 토대 연구’를 아젠다로 내세움으로써 동아시아의 섬·해양·대륙문화의

29) 대표적인 주장들로는 제주도가 하나의 완결된 독자적인 문화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한국문화의 옛형태를 간직하고 있다는 주장,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사회이면서 개방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등을 들 수 있다.

30) 즐고,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 『耽羅文化』 제39호, 2011, 177~213쪽.

31) 김성수, 「지역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 『耽羅文化』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13~15쪽.



[그림 2. 동아시아중해문화교류지도]

네트워크가 신화·굿·제주어·해녀, 말[馬]이라는 주요요소를 가진 탐라문화를 중심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점을 강조하려고 동아시아지도를 거꾸로 뒤집은 이른바 「동아시아중해문화교류지도」를 제안하였는데, 동아시아지도를 뒤집어 제주가 그 한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하는 이 사고의 전환은 상당히 독창적이면서도 개방적이다. 그런데 (1)유럽문화의 출발점인 지중해를 패러디 또는 벤치마킹하였음에도 유럽문화

에 비견할 수 있는 동아시아문화의 보편적 차별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2)신화를 비롯한 탐라문화의 5개 요소가 동아시아중해 문화의 중심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의 논거가 제주를 기점으로 하여 권역내 북방문화와 남방문화가 교차하고 있다는 전제와 그 논거가 대부분이라는 점, (3)고립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한국문화의 원형 복원은 탐라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 등을 분석해보면, 표면적으로는 권역내 보편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차별성에서 출발하여 독자성으로 귀결되는 순환논증의 구조가 드러난다.³²⁾

32) 이후 탐라문화연구원의 중점연구소지원사업 및 인문한국지원사업 신청 주제들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도 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서는 연구분야가 ‘인류학’으로, 과제명은 ‘음식문화의 탈근대적 패러다임 모색’으로 신청되었고, 2009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에서는 연구분야가 인문/어문, 사회/예술/체육, 자연/공학/의약학/농수해/복합학으로, 아젠다명은 ‘음식을 연구하여 21C 문명과 사람을 살린다·섬·제주·동아시아 음식문화 탐구’로 신청되었으며, 2010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에서는 소형, 해외지역연구분야로,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권역(마리아나제도, 캐롤라인제도, 마셜제도)+쿠로시오 권역(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대상권역으로, 연구과제명은 ‘태평양의 해양인문연구·미크로네시아·쿠로시오 권역에서 사람과 문명의 이동’으로 신청된 바 있다. 2011년도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에서는 2010년도까지의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한 ‘제주도와 쿠로시오해역의 해양

동아시아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제주를 중심에 넣은 「동아지중해문화 교류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제주가 동아지중해 또는 태평양시대를 열어젖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나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 때문이 아니다. 제주가 동아시아문화지도의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생략되었거나 점으로 표기되었지만, 그곳에서 살면서 역사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결과 수많은 동아시아사적 사건들이 발생한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개략적으로만 언급하더라도 제주4·3과 대한민국정부수립, 일제 강점기의 해녀항쟁[1932], 신축교난(辛丑教難, 1901)이라고 불리는 이재수의 난, 방성철의 난으로도 불리는 제주도농민항쟁[1898],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난 강제검의 난[1862], 출륙금지령(인조 7년; 1629)과 제주도 역모사건[1601], 조선의 개국[1392]과 실질적 복속[1406], 고려 복속[1294], 원복속[1275]과 탐라총관부설치[1273] 등, 동아시아문화지도에 등장한 이래로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제주는 한반도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 그것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동아시아 국가들과 근세에 동아시아를 침탈한 서양세력이 교직(交織)되는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제주가 중심이라는 층위에서 제주는 동아시아의 중심의 패권을 차지하는 이념적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층위는 해양으로 대륙으로 확대되는 ‘면(面)’을 가진다기보다는 개인적 삶과 공적(公的) 역사라는 ‘두께[積]’를 가진다. 그러나 정작 제주의 공간담론에서 이 두께에 주목하고, 그것이 강조된 적은 없다. 오히려 한 번도 중심이라는 층위에서 본격적으로 조망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주담론에서는 늘 면(面)이 전제된 타자적(他者的) 시각이 부각되었다. 그러다보니 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층위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터전이 아니라, 그곳을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하려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춘 상품이 되어

융합연구’로 신청되었고, 2014년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서는 ‘국문학, 한국현대사, 동양철학일반’의 학제간 연구로, ‘되살림의 인문학: 치유와 재생의 인문학적 공간과 상상력’이라는 연구과제로 신청된 바 있다. 사업계획서는 신청 단계에서 제안서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신청 아젠다를 보면 ‘탐라’는 있지만 ‘탐라의 정체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동아시아는 있지만 그것으로 묶을 수 있는 주제어는 드러나지 않는다.

버린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주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기호가 ‘차별성’을 중시하다보니 ‘독자적 중심성’을 강조할 수 있는 ‘섬[島]’, 로컬, 해양의 시뮬라크르(simulacre)가 무분별하게 복제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중심인 수많은 로컬들이 각각의 공간에 겹겹이 포개짐으로써 두께를 가지게 된 시간의 층위들이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교차함으로써 완성되어간다는 문화지도의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본래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IV. 공간(空間), 제주

제주의 공간이 새삼스럽게 ‘거기에 사람 사는 섬이 있었네!’라는 발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위(當爲)가 아닌 사실이다. 삶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말할 것 같으면 기원전 2337년 전에 기원을 두고 있고, 관계를 통한 인식범주에의 포섭이라는 점에서 말할 것 같으면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자처하던 중국지도에 등장하는 원대(元代) 이후에는 동아시아권역의 인식 범주에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사랑하는 신비의 섬’,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힐링의 섬’, ‘미래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문화산업의 원형콘텐츠가 풍부하게 매장된 보물섬’ 등으로 새삼스럽게 재발견되거나 개발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보존과 개발, 어느 쪽 입장에서든 제주의 공간을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날 열풍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제주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은 낮선 자연경관 때문이기도 한데, 그 ‘낮설다’는 기표 이면에는 자연경관을 포함한 제주도가 ‘내버려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단절되어 있었다는 ‘변경’의 이미지가 여전하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후기 산업화 사회에서 낮선 경관과 문화를 가지게 된’ 제주를 두고 개발하려는 쪽은 물론 보존하려는 쪽에서마저도 ‘있는 그대로[自然]’ 두지 않고, 또 다른 극실재(極實在, Hyper-reality)를 양산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는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그곳을 이미지화하여 찾아든 사람들에게조차도 ‘낮선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오늘날 우리가 살

았고, 살고자 하는 제주는 동아시아 어디에도 없었고, 한 때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박제된 채로만 있으며, 앞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실상 지금 이 순간에만 소비되는 복제품(simulacre)으로 있는 것에 불과하다. 요컨대 낯선 기표들과 복제품들 사이에서 실제 삶의 공간인 제주는 사실상 있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다.³³⁾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삶의 현장으로서 동아시아의 보편성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갈 때 독자적 중심성이 확보된다.’라는 역설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도 결국은 현실의 제주와는 동떨어진 이상에 불과한 것으로서, 또 다른 하나의 극실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물론 이런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제주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증가된 이주민의 수만큼 복제품 제주가 늘고 있는 것도,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복제품 제주에 대한 문제의식이 늘고 있는 것도 오늘날 제주의 현실이고, 그런 점에서 그것이 실재하는 제주 공간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하다. 곧, “전통-근대-탈근대라는 비동시대적인 것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제주는 이러한 차이의 공간을 찾으려는 원초적인 몸짓과 응얼거림으로 가득 차 있다.”³⁴⁾라는

33) 이윤정, 「제주 이주 경험담 ‘제주, 살아보니 어때’ 출간한 홍창욱씨 “섬살이는 로망과 냉혹한 현실 공존’, 『경향신문』 2015.11.04.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42122475&code=100100). 이 기사에는 2009년 11월에 제주로 이주한 이른바 문화이주민인 홍창욱씨가 제주에 정착하면서 제주도 주민과 이주민을 만나들며 인터뷰한 내용을 출간한 도서를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홍씨는 ‘박범준씨가 제주살이는 <자발적 유배>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제주도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지역주민과 섞이지 못하는 문제, 비싸지는 집값, 고정 수입을 얻기 힘든 점 등 다양한 문제들을 짚어냈다’고 했다.“라는 내용이다. 제주도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을 제주도에 먼저 이주하여 정착한 이의 관점에서 정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 토박이의 관점에서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제주 이주민들이 제주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이미지화한 제주의 시뮬라크르를 내세워 오히려 제주 토박이들을 가르치려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토박이들의 피해 의식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과 섞이지 못하는 문제’라고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4) 서영표, 앞의 논문, 40쪽.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제주의 실제와 복제가 차이점을 가진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그 차이점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제주의 공간 자체가 ‘비동시대적인 것의 공존’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둘 수 있다고 할 때, 그러한 담론의 핵심은 ‘포개진 공간’, ‘살아있는 공간’, ‘공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불교 화엄학의 ‘법계연기(法界緣起), 법성원융(法性圓融)’이라는 세계관은 오늘날 제주의 공간 담론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을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하는 화엄종에서는 “상대적 세계관을 절대적 세계관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세계관적 갈등을 해소하여 무한·보편·평등한 세계관을 갖게 하는”³⁵⁾ 무진법계(無盡法界)의 상즉원융관(相卽圓融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도철학에서 법(法)에 해당하는 개념 ‘dharma’는 현상(現象)과 본질(本質), 권력(權力)과 진리(眞理)라는 의미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법계(法界, Dharma-dhātu)란 ‘진리의 영역’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현상 세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인도철학은 그 자체가 철학과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인생의 네 가지 목표 가운데 법(法, dharma), 부(富, artha), 애(愛, kama) 등 세 가지가 현실적 가치일 정도도 현실 중심적이다. 따라서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기도 하는 법(法, dharma)이 현실적 권력 또는 의무 어느 쪽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힌두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힌두교를 비판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는 존재 일체를 괴로움[苦]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현상 세계와 진리의 영역이 동시에 법계(法界)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화엄종(華嚴宗)에서는 유심론적이기는 하지만 (1)법계연기(法界緣起)와 (2)법성원융(法性圓融)의 논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³⁶⁾

35) 남상호, 「화엄종의 相卽圓融의 방법」, 『陽明學』 제25호, 한국양명학회, 2010, 303쪽.

36) 불교에서 ‘법계’라는 개념은 六根(眼耳鼻舌身意 등 여섯 감각기관), 六境(色聲香味觸法), 六識(眼耳鼻舌身意 등 육근이 육경을 인식하는 것)의 十八界 가운데 意根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모든 사물을 가리킨다. 화엄종에서 말하는 법계는 『화엄경』의 「여래상해품」과 「입법계품」에서 사용된 개념인데 법장 이후로 眞如 또는 일체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남상호, 앞의 논문, 311쪽>을 참조할 것.

화엄종의 법계연기설은 화엄종 제2조인 지엄(智儼, 602~668)과 그의 제자 제3조 법장(法藏, 643~712)에 의해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세계관과 진리관을 나타내는 핵심용어가 되었다. 물론 제1조인 두순(杜順, 557~640)의 세계관인 삼중관(三重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상과 이상의 개념인 사(事)와 리(理)의 개념이 결부된 것이다. 곧, 제4조 징관(澄觀, 738~839)에 이르러서는 법계연기설과 법성원융문을 대입한 사법계(四法界)의 화엄 세계관이 구축되었고, 제5조인 종밀(宗密, 780~841)에 이르러서 사종법계설(四種法界說)이 정리되었다. 이 사종법계설로 대표되는 법계연기의 세계관은 (1)현상세계는 상호 연쇄적 요인에 의해서 펼쳐진 것[法界緣起, 重重無盡]이고, (2)본래 가진 바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法性圓融, 無二相]이라고 파악한다.³⁷⁾

(1)현상세계가 상호 연쇄적 요인에 의해서 펼쳐진 것이라는 법계연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사법계(事法界), 이법계(理法界), 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 등의 사종법계(四種法界) 개념을 알아야만 한다. 우선 사법계(事法界)는 차별적인 현상계를 가리키는데, 제5조 종밀의 해설에 따르면 사(事)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중(三重)이라고 할 때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법계(理法界)는 차별을 넘어 있는 진리의 경계, 즉 모든 법(法)의 차별을 일관하여 존재하는 체성(體性)으로서 본체평등계(本體平等界)를 가리킨다. 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는 현상계인 사법계(事法界)와 실체계인 이법계가 일체불이(一切不二)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는 현상계의 일체 사물들이 서로 걸림 없이 중중무진(重重無盡)하게 서로 융합[相融]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상호 연쇄적 요인에 의해 펼쳐지는 세계이다.³⁸⁾

우리는 흔히 진리의 세계, 본질적인 세계는 현상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징관은 사종법계 가운데 이법계에 해당하는 두순의 진공

37) 徐海基, 「징관의 화엄법계관-법계 이해의 세 가지 유형」,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논문집』 제10집, 중앙승가대학교, 2003, 235~237쪽.

38) 남상호, 앞의 논문, 311~312쪽.

관(眞空觀)에 대해서 ‘진공(眞空)은 단멸(斷滅)의 공(空)이 아니고, 색(色)을 떠난 공도 아니다.’라고 주석했다. 곧 진리의 세계는 현실 세계를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하여 현상적 요소를 없앤 것도, 현실세계를 떠난 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현상은 진리를 실현해내는 것이므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본질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현상의 본질을 두고 진리의 세계라고 말한다는 논리이다. 같은 맥락에서 두순의 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에 대해서는 진리와 현상이 상호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사사무애법계에 해당하는 두순의 주편함용관(周徧含容觀)에 대해서는 현상은 각각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진리는 보편적인 것이므로 장애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진리로서 현상을 융합시키면 모든 현상사물은 진리처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³⁹⁾

사종법계의 구조로 본 오늘날 제주의 현실 공간은 사법계로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현실 공간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 공간은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들, 곧 토박이건 이주민이건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공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상을 배제한 순수한 현실 공간을 걷어내어 따로 떼놓을 수는 없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없는 이상 공간은 있을 수 없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현실을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 또는 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주민과 토박이가 생활하고 있는 제주의 현실 공간은 서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차이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다기보다는 각자의 특수성을 오히려 보편성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곧, 현상 공간이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상 공간으로 수용되는 것이다.

‘이상 공간이 현상 공간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상 공간이 본질적으로

39) 남상호, 위의 논문, 같은 쪽.

갖추어진 보편성을 복원함으로써 이상 공간에 수용된다’는 논리는 모든 것이 상호 연쇄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 화엄종에서는 이것을 열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십현문(十玄門)이라고 한다. 십현문은 현상 공간인 사사무에법계의 형태를 불교의 전통적인 10개의 공간 형식[十方; 東西南北, 間方, 上下]을 빌려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화엄종 제4조 정관은 이 십현문을 큰 바다를 이루는 것은 수많은 시냇물이라는 것, 조그만 거울 속에서 천리를 볼 수 있는 것, 방 안에 있는 천 개의 등불이 빛을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것, 금과 금색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것, 조각달이 맑은 하늘에 있음에도 어둡고 맑은 차이가 있는 것, 유리병에 겨자씨를 많이 담은 것, 두 개의 거울이 서로 번갈아가며 무한히 비추는 것, 비유가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는 비유되는 것, 하룻밤의 꿈이 백 년 동안 생생할 수 있는 것, 북극성이 있는 곳을 모든 별이 떠받드는 것 등으로 설명했다.⁴⁰⁾

십현문은 모든 현상이 현실적으로는 차이를 가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세계를 구성하는 보편성을 갖추고 있어서, 이 세계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가 된다는 것을 열 개의 구체적인 사례로 예시한 것이다. 그래서 십현연기(十玄緣起)라고도 하는데, 특히 현상이 그 본질과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융합하는 관계로서 장애가 없다는 것, 그리고 개개의 현상들의 상호 관계도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융합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상즉상입(相卽相入), 또는 상즉상용(相卽相容)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중중무진(重重無盡)이라는 말에서 확인되듯이 하나의 현상, 국면, 층위에서 융합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층위에서의 상즉상입이 다음 번 층위의 상즉상입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 현상, 국면, 층위가 되는 식으로 끊임없이 포개져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십현연기의 논리는 이상과 현실이 서로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상즉상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사사무에법계(事事無礙法界), 곧 현상 세계의 각 현상들 사이에서의 장애 없음을 설명하는 논리

40) 남상호, 위의 논문, 314~316쪽. 4조 정관의 설명은 순서대로 同時具足相應門, 廣狹自在無碍門, 一多相容不同門, 諸法相卽自在門, 秘密隱顯俱成門, 微細相容安立門, 因陀羅網境界門, 託事顯法生解門, 十世隔法異成門, 主伴圓具德門에 해당한다.

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본래 가진 바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라는 법성원융(法性圓融)의 무이상(無二相)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화엄종에서는 법계연기론의 원융(圓融)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육상원융(六相圓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육상(六相)은 총상(總相, 만유의 보편상), 별상(別相, 만유의 개별상), 동상(同相, 만유의 동일상), 이상(異相, 만유의 차별상), 성상(成相, 만유의 통일상), 괴상(壞相, 만유의 독립상)을 가리키는데 세친(世親)이 『십지경론(十地經論)』에서 보살행을 말할 때 사용한 개념이다. 이 개념을 지엄에 이어, 법장과 징관이 법계연기론의 원융(圓融)을 설명하는 논리로 완성한 것인데, 객관세계와 주관세계의 세계관이 다양한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사이의 관계나 작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¹⁾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계연기와 십현연기의 논리는 어떤 특정 현실 공간과 이상 공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한정하여 말할 수 있다. 제주의 공간으로 말한다면 제주의 현실 공간과 이상 공간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현실 공간과 이상 공간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제한된 인식 때문이므로, 이상 공간이 구현된 것이 현실 공간이고 현실 공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이상 공간이라는 점을 깨우치면 그 차이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육상원융은 현실의 수많은 차별적 공간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와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의 공간으로 말한다면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주변부였던 제주가 중심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동아시아의 보편, 동일, 통일을 전제로 하여 제주 공간의 개별, 차별, 독립상을 확보하는 것이 장애 없는 원융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는

41) 남상호, 위의 논문, 316~317쪽. 남상호는 육상에 대해서 總相은 ‘만유는 하나의 體’, 別相은 ‘만유의 차별적 각부분’, 同相은 ‘각 부분의 상호통일적 조화’, 異相은 ‘각 부분의 자기 정체성’, 成相은 ‘각 부분간의 통일체적 관계형성, 壞相은 ‘각 부분이 일체적 관계를 가졌어도 자기 정체성을 유지’ 등으로 부기하여 설명하였다.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역력한 내용이지만, 총상과 별상, 동상과 이상, 별상과 괴상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전체와 부분, 동질성과 차이성, 통합성과 독자성으로 對句를 이루고 있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본문에서는 수정 인용하였다.

말이 된다. 이렇게 보면 육상원용은 세계의 체계와 그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화엄종의 제3조 법장은 『화엄오교장(華嚴五教章)』에서 육상을 건물과 건물의 부분들을 이용하여 설명한 바 있다. 먼저, 총상은 건물, 별상은 서까래에 비유할 수 있다. 전체가 전체일 수 있기 위해서 부분은 전체를 형성하는 데 총체적 힘을 발휘하여야 한다. 총체적 힘을 지닌다는 것은 전체 건물을 지탱하는 힘이다. 반면에 부분적 힘이라는 것은 서까래의 힘을 말한다. 다음으로, 동상은 서까래와 기둥, 그리고 기와 등의 부분들이 건물을 이루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상은 서까래와 기둥, 그리고 기와 등이 다른 것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상은 서까래와 기둥, 기와 등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괴상은 서까래와 기둥, 기와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전체에 함몰되어 버리지 않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⁴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1)현상세계는 상호 연쇄적 요인에 의해서 펼쳐진 것[法界緣起, 重重無盡]이고, (2)본래 가진 바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法性圓融, 無二相]이라는 법계연기는 (1), (2)조차도 결과적으로 하나로 융합시키는 논리라고 하는데 그 특징점이 있다. 이 논리는 부분인 하나가 전체를 이루는 개별자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독립성 때문에 전체를 이루는 통일성이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로 독립성을 가진 부분이라 하더라도 보편자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통일성 때문에 부분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1-(1)제주의 실제 공간과 복제된 극실재 공간, 도민의 생활 공간과 이주민의 이상 공간, 그리고 이 모두

42) 전영숙, 「화엄사상의 가족치료적 함의」, 『철학논총』 제50집, 새한철학회, 2007, 388~389쪽. 전영숙은 화엄법계연기사상이 가족치료의 체계론적 관점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화엄의 보살정신과 선지식이 가족치료적 함의를 지닌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장의 육상원용론을 가족과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비교분석한 바 있다.

를 포괄하는 제주의 시간적 층위가 상호요인이 되어서 펼쳐지는 것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작용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1-(2)제주 공간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공간이 제주라는 공통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어 실현시킬 때 각각의 공간이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차이와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를 동아시아문화지도로 확장하면 2-(1)동아시아 문화의 로컬과 글로벌, 주변과 중심이라는 문화적 위치와 그러한 시간의 두께를 포함한 층위들도 상호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금도 지속 중이며, 2-(2)이미 전개된 공간의 시간적 두께를 가지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공간의 층위를 펼쳐낼 때 제주문화공간의 실재가 구현되고 제주문화공간의 자체적 중심성과 차별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V. 맺음말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문화’가 절대 우위의 헤시태그(#)가 되면서, 변방으로 소외받던 제주의 역사문화도 지금까지와는 전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예컨대 1980년대 지역학을 이끌던 제주학 연구자들이 이중소외의 역사를 가진 제주가 변방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방안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문화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고도(孤島)’라는 상징에 현대 문화산업의 다양한 이미지가 덧입혀졌다. 그래서 오늘날 제주, 제주 섬, 제주 섬을 둘러싼 해양 세계, 곧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제주 공간은 상징조작(象徵操作, image manipulation), 또는 극실재(極實在, Hyper-reality)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아예 생략되거나 점으로 표기되었던 것에 비해, 제주 열풍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문화이주민들이 급증하게끔 한 이미지인 ‘신자유주의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힐링(healing)의 섬’이

라는 것이다. 예전에 비해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었지만, 육지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입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치열한 경쟁 양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현재 제주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힐링의 섬’이라는 이미지로 제주가 지금 급격하게 소비될 수 있는 까닭은 과거의 폐쇄성 때문이지만, 급격히 개방 소비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제주는 이제 ‘힐링의 섬’이라는 이미지로 소비될 수 있는 자원을 고갈하여 종언을 고할 시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제주에 이주하는 문화이주민들의 의식수준과 그에 따른 이주지 제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한 데 비해, 현실의 공간 제주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어느 지역이나 새롭게 이주해 들어오는 이주민들과 토착민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쟁 논리’라는 생존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이들을 부추기는 제주의 이른바 ‘시물라크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문제이다. 곧, 이주민들이 상상하는 제주와 실제 직면하는 제주의 상(像)은 상당한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의 책임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갈등 양상이 펼쳐진다. 도민(島民)이 제주 문화를 잘 보존하고 선양(宣揚)하지 못하고 있다고 탓하거나, 반대로 이주민이 제주 문화를 잘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려 든다고 비판하여서 도민 대 이주민의 문화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제주문화공간이 과거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차지했던 위치와 오늘날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위치를 검토해보았다. 제주는 화이론적(華夷論的) 세계관에 기초한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원대(元代) 이전까지는 생략되었고, 이후로는 한 개의 점 정도로 표기된 주변이었다. 그러므로 제주가 변방 또는 변방의 변방이라고 하는 주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이론적 세계관에서는 당연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변방의 위치로 편입된 이후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또는 서양세력까지도 개입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변방의 폐쇄성이 오히려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그 과정을 단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경험하고 있다. 곧, 제주 공간은 동아시아

문화지도의 변방이라 하더라도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각각의 층위가 포개진 두께를 가진 공간이라는 중심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은 변방과 중심, 폐쇄성과 개방성이라는 이항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다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다음으로, 제주가 주변이면서 두께를 가진 중심 공간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할 때 제주 공간이 겪고 있고, 앞으로 더 격렬하게 겪게 될 수도 있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화엄종의 법계연기(法界緣起)와 법성원융(法性圓融)이라는 세계관이 현실 공간과 이상 공간의 차이, 공간의 중심성과 주변성을 해소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법계연기는 현상세계가 상호 연쇄적 요인에 의해서 펼쳐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법성원융은 개별 현상이 본래의 독자성을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보편적 세계, 곧 중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현실 세계의 문제점이 해결된 세계가 진리의 세계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계연기의 세계관에 따르면, 현실 세계에 구현되지 않는 진리의 세계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은 이미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육상원융의 논리구조에 따르면 하나의 공간에서 두께를 이루고 있는 층위 각각은 그 공간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해당 층위에서 독자성의 의미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각각이 또한 그 전체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제주에 전통-근대-탈근대라는 비동시대적인 것이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의 공간을 찾으려는 원초적인 몸짓과 웅얼거림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선행연구의 희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반대편에서 ‘문화(文化)’가 아닌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사업’의 상품으로 대상화되어 소비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희망해도 좋을 이유를 동아시아 문화지도에서 제주문화공간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러한 제주문화공간의 겹겹이 포개진 층위를 화엄의 세계관과 비교하였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귀결은 일(一)과 다(多), 다자(多者)와 과거·현재·미래가 동시적·내재적으로 관계한다는 화엄의 법계연기와 법상원융의 체계적 구조가 수

많은 층위로 두께를 가진 제주 실제 공간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고, 육상 원용에서 확인되듯이 현재의 층위에서 제주의 위치를 중심으로 옮겨 오는 것이 제주의 주변성을 극복하는 방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주 공간의 두께에 천착하는 것이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제주의 문화공간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서 ‘살아 있는 공간’이며, 희망해도 좋을 터전이라는 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

- 권중달, 「중심부의 논리: 중화사상-이춘식 『중화사상』(교보문고, 1998년) 서평,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6호, 동아시아문화포럼, 2001, 233~240쪽.
- 김남희 외, 「<아시아문화지도>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08, 123~146쪽.
- 김상철 외, 「문화지도-지도를 매체(media)로 한 문화의 이해와 표현,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08, 147~172쪽.
- 김상현 외, 「아시아문화지도 문화분류체계와 기반기술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08, 173~203쪽.
- 김성수, 「지역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 『耽羅文化』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쪽.
- 김치완, 「섬[島]-공간의 철학적 접근: 플라톤과 노자의 ‘공간’ 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4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4, 120~147쪽.
- _____,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 『耽羅文化』 제39호, 2011, 177~213쪽.
- _____, 「카미노와 올레를 중심으로 본 문화콘텐츠로서의 길, 『인문콘텐츠』 제30호, 2013, 49~65쪽.
- 남상호, 「화엄종의 相即圓融의 방법, 『陽明學』 제25호, 한국양명학회, 2010, 301~328쪽.
- 李成珪, 「中華思想과 民族主義, 『철학』 37, 한국철학회, 1992, 31~67쪽.
- 서영표,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 『공간과 사회』 제24권 1호(통권 47호), 한국공간환경학회, 5~45쪽.
- 徐海基, 「징관의 화엄법계관-법계 이해의 세 가지 유형,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논문집』 제10집, 중앙승가대학교, 2003, 235~237쪽.
- 양정필, 「근대 교토수단의 발달과 제주 ‘섬’ 인식의 변화, 『섬과 바다의 인문학 (<인문도시지원사업> “인문주간” 학술대회논문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79~93쪽.

- 오상학, 「중국 고지도에 표현된 제주도 인식의 변천」, 『문화역사지리』 제25권 제 2호, 2013, 1~14쪽.
- 이영웅, 「제주도, 개발 광풍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섬을 꿈꾸다」, 『환경과 생명』, 2008년 겨울호(통권 58호), 2008, 138~151쪽.
- 전영숙, 「화염사상의 가족치료적 함의」, 『철학논총』 제50집, 새한철학회, 2007, 383~408쪽.

기사 및 온라인 자료

-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編集部, 「韓國經濟急減速の眞實「強い韓國」はどこへ行ったのか?-向山英彦・日本総合研究所上席主任研究員に聞く」, 『ダイヤモンド社のビジネス情報サイト』, 2015.04.23.기사(<http://diamond.jp/articles/-/70569?page=4>).
- 강승남, 「“더 큰 제주, 세계 중심의 제주 만들겠다”」, 『제민일보』, 2014.07.01.기사(<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791>).
- 박만원, 연규육, 「시진핑 정부가 키울 새 먹거리는…빅데이터·IOT·신에너지車·문화산업-中 GDP 50% 넘는 서비스산업…규제완화·대외개방 정책 펼듯」, 『매일경제』, 2015.10.26.기사(<http://news.mk.co.kr/newsRead.php?no=1018163&year=2015>).
- 이기석, 「「2013예산안」 5년차 MB정부 ‘균형재정회복’ 공언, 결국 ‘물거품」, 『뉴스핌』 2012.09.25.기사(<http://newspim.com/anda/view.jsp?newsId=20120925000819>).
- 이소진, 「예산·사업 확대…현장 체감은 ‘글썴」, 『제민일보』, 2015.07.21.기사(<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243>).
- 이윤정, 「제주 이주 경험담 ‘제주, 살아보니 어때’ 출간한 홍창욱씨 “섬살이는 로망과 냉혹한 현실 공존」, 『경향신문』 2015.11.04.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42122475&code=100100).
- 제이티뉴스, 「새도정준비위원회 123개 도정 정책과제 도출 내용」, 『제이티뉴스』, 2014.06.29.기사(<http://www.jt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4#>

Abstract

An Essay on Jeju Cultural Space Borrowing the World View of Hwaeom(華嚴)

Kim, Chi-Wan*

Metaphysical discussions of space have not been much different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in ancient times and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And most of today's spatial discourses have similarity by concluding that space 'must be living and moving practical field.' However, the concept of space and the world view of its frame are always demanded to review because they are not changing qualitatively as much as the amount of spatial discourses. Furthermore, the space is not a fixed form of an object having an area from here to there but constantly creating and changing field of life.

Today, cultural industry of our society occupies a luxury position for which the term of 'entertainment' cannot dare to be applied. In this context, Jeju has a turning point (轉機) to overcome the image of 'periphery(邊方)' and suggest differentiated cultural products. Accordingly, the space of local communities is facing considerable changes. Thus, it becomes the time to review the position of Jeju space in the East Asian ethnocartography and multiple layers (層位) of the space.

This study examines phenomenal layers of periphery Jeju as clearly marked region until now in 2015 and contrastively the layer of

* Departmen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fundamental position as ‘core and local’ Jeju considering various spatial discourses including such as locality discourse, and as well as it reviews the space that creates a conflict with its phenomenal position. At las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o establish equal and ‘thick’ network by practicing humanities of cognitive changes between phenomenal space and abstract space and the global and the local.

Today, Jeju, attached by hash tag (#) of ‘culture’, drew attentions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countries likely as rediscovered region. Thus, the image of Jeju, ‘a remote island (孤島) having the original culture of Korea’, was manipulated (象徵操作) as ‘an island with full of healing and comforts for modern people who suffered from competitions of neo-liberalism’ to strategically deviate from the sense of periphery. For the manipulated image of healing island, no more healing existed in Jeju according to rapid opening and the consumption.

As shown in the image of ‘healing island’, the levels of consciousness of cultural migrants who moved to Jeju in these days and their expectations for living in Jeju were considerably high. However, the space of reality could not satisfy their demands because of differences between the reality and ideology, the phenomenon and the nature, and the existence and the imagination. According to assigning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changes to the residents of the province or the immigrants, new aspects of conflicts, cultural conflicts, could be occurred. Moreover, how to recover and rediscover the self-identity of Jeju was considerably discussed whether to be based on the past, the present, or the future.

Jeju was the hopeful space in where non-contemporary phenomena existed simultaneously and space of maritime and content was crossed over. But on the other hand of the hope, the desires of ‘entertainment’ that camouflaged as ‘culture’ were greasy. However, it could be still positive because the existing borders between the East Asian ethnocartography became much weakened and thus Jeju could have

considerably heavy thickness of life among multi-subjects even though it was recognized as the periphery. Therefore, Jeju cultural space would be hopefully ‘living space’ like it was and is.

Key Word : Jeju Cultural Space, World View of Hwaem(華嚴), cultural industry, entertainment, island with full of healing, image manipulation.

교신 : 김치완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E-mail: dasan@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6. 01. 15.

심사완료일 2016. 02. 11.

게재확정일 2016. 02. 12.